

물리학자인 지은이는 우리가 사는 도시를 다룬 《도시의 과학자들》(정영목), 과학자의 눈으로 본 바다 이야기인 《해변의 과학자들》(이한음, 이상지호)에 이어 《산꼭대기의 과학자들》을 내놓았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상과 지식은 산꼭대기에 있지만 은근한 설명은 컷가에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쉽게 말하기'를 실천하며 지구와 우주의 궤적을 따라간다. 지구와 별이 탄생해 우주를 이루는 큰 이야기와 지구의 대륙이 떠다니는 조금 작은 이야기, 그리고 몸이 친친 감긴 나무에 이르는 아주 작은 이야기까지 지은이가 풀어놓는 화제는 다양하다. 산을 오르며 만나고 거치는 대상을 하나씩 짚으며 사고의 방향과 결과를 우주로 모은다.

사전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해

기존의 과학책들은 자연과학에 대한 독자의 선입견을 씻어버리고 친근한 학문으로 자처하려는 의지가 때로 과욕을 부른 모습이었다. 어려운 내용을 포장하려는 듯 화려한 그림으로 치장하고, 다양한 색깔로 눈길을 끌었다. 이런 책들은 한번 환한 눈길을 받을 순 있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내용'으로 독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기 쉽게 하는가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무척 돋보인다. 건조하고 투박하다 싶을 정도의 단순한 그림과 그래프,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야기는 기존의 과학책에 길들여진 독자를 오히려 당황하게 한다. 하지만 꾸미지 않고도 눈길을 끌 수 있고, 한번 잡으면 손에서 놓지 않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은 바로 그 솔직함과 성실함에서 나온다. 사전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쉬운 내용은 사람이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가할 뿐 결코 진의를 훼손하지 않는다.

몰라도 사는 데 지장 없거나, 하등 쓸모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아무래도 수학과 자연과학의 운명인 것 같다. 과학자가 장래희망이었던 아이가 수학과목의 벽과 과학과목의 탄축을 극복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예사일이고, 자연과학이 암기능력과 인내력을 기르는 '홀통한 과목'으로 인식된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석》이나 《해법수학》 같은 '경전'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수학과 비교해, 물리나 지구과학, 화학, 생물 등의 자연과학을 더욱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지만, '운명' 운운하며 생활과 자연과학을 연결시킨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과학 지식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환경과 본질에 대한 탐구가 바로 자연과학이 맡은 임무임을 깨달을 때, 생활 속에 만개한 자연과학을 확인할 수 있다.

발치에 걸리는 돌부리, 하늘에 반짝이는 별, 어찌 저토록 몸이 친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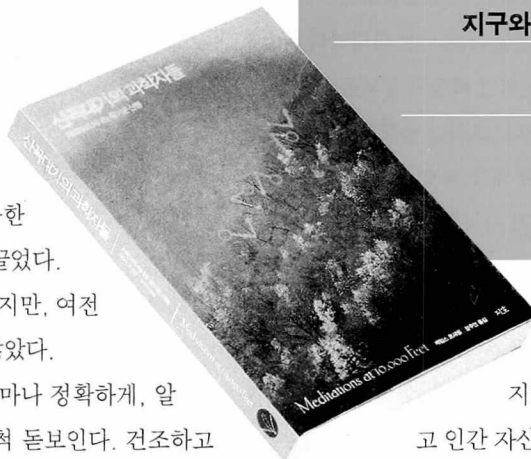
이 책은 산을 오르며 마주치는 바위, 물, 나무 등을 실마리로 우주의 관계망에 진입한다. 바위 덩어리에서 빅뱅 후의 우주물, 시냇물의 소용돌이에서 우주 속의 물질이동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간다. 지은이는 자연과 우주는 마음을 열어야 만날 수 있고, 열린 마음은 마음을 비워 놓아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결코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 지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책갈피산책

《산꼭대기의 과학자들》

지구와 우주의 아름다움 발견하는 즐거움 일깨워

제임스 트레필 지음 | 정주연 옮김
지호/A5신/352면/13,000원



감졌을까 싶은 이름 모를 나무는 스쳐 지나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자연물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각기 하나의 '완성된 소우주'고 인간 자신이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간직한 '또 다른 인간'이다.

아름다움을 더하는 지식

어떤 사람들은 사물의 내부를 조사해 분석하고 해체해버리면 그 사물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손상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분석이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더 잘 알고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오르도록 돕는다.

지은이의 말대로 오페라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단순히 음악만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오페라의 이야기 내용을 따라가며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작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악보나 연주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특별한 지식은 오페라를 즐기는 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오로라나 무지개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다 아름답다. 동틀녘 또는 해질녘에 보는 산은 그 산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아는 사람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모두 장관이다.

이렇듯 더 많은 지식은 스쳐지나 존재하지 않을 것들에 이름을 지어주고 실체를 선사할 뿐 아름다움을 다치게 하는 일은 없다. 《산꼭대기의 과학자들》의 미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차정신기자